

이태준의 이론과 실천의 틈

조남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태준의 언어 중시론

193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태준은 여러 글을 통해 크게는 언어 작계는 조선어 더 작계는 소설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해방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언어와 민족」에서 언어를 지키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역설했다.

언어가 한번 불행하여 제 민족에게서 떠나 버린 날은 그 언어만의 소멸이 아니라, 그 언어의 주인, 그 민족까지 새 다른 어족에 동화되어 본래의 자기 민족으로는 성격적으로 소멸되고 마는 것이니, 이는 가까히 만주 민족과 만주어의 실례로 요연한 것이다.(『이태준문학전집』 17, 서음출판사, 1988, 72쪽)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태준은 조선의 언어나 문화가 일본어나 일본 문화로부터 침투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족해방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조선의 언어나 문화는 일본어나 일본문화의 독성을 막아 낼 수 있었다는 지적은 구체적인 논거를 디디고 서 있지 않아도 쉽게 긍정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8.15 단 하루를 경계로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 각면에서 획연하게 우리가 조선민족으로서의 면목을 돌이킨 것은 우리 민족의 애국심만으리가 아니라 사실은 조선의 언어나 문화가 일본의 그것이 침투해 자리 잡을 수 없을 만치 독자적 우수한 실력을 가졌던 까닭이다.(위의 책, 72쪽)

역시 해방 이후에 쓴 「문학과 언어」에서 이태준은 “국어재건은 곧 우리문학 재건의 기초공사”임을 주장하면서 “조선문학가란 유일한 조건은 조선어로 쓴다는 것만으로 규정되는 것”(74쪽)을 우리 자신에게 고조시켜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위의 주장과 충고는 얼핏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실천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해방 직후 작가들 사이에서 문학재건의 기초공사로서의 국어재건에 맞치는 실질적인 노력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어로 된 것만이 조선문학”이라는 주장은 얼른 또 쉽게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단일어족인 우리는 문학 건설에 있어서 우선 단일적인 것이다. 그리고 문학은 표현형식에뿐 아니라 사고내용에까지 언어의 제약을 받는다. 조선어 어음의 방사선적 무한성과 어의의 적정예리(適正銳利)한 감각성은 문학용어로서 이상적 언어일 것이다. (75쪽)

문학이 표현방법에 있어 언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언어는 표현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고의 내용과 방향까지 결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소설도 그 작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과 양에 따라 높낮이라든가 갈래가 결정되는 법이다. “한국어의 어의의 적정예리한 감각성”에서 이상적 문학어로서의 가능성을 찾은 것은 한국어에 대한 이태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애정이 어우러진 끝에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가 「한글문학만이 조선문학」이란 글에서 “첫째, 조선글로 된 것이라야 ‘조선문학’일터이지요. 조선사람이 썼더라도 조선말이 아니면 ‘조선문학’이 아니요, 외국인도 썼더라도 조선말이면 그것은 훌륭히 ‘조선문학’이라 생각합니다.”(248쪽)고 한 것은 조선문학의 포괄성보다는 순수성을 더 크게 의식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 이처럼 이태준의 언어 중시론은 언어 절대론을 내포하고 있다.

2. 이태준의 작품에 나타난 국어 실천력

소설집 『돌다리』(박문서관, 1943)에 수록된 「무연(無緣)」(『춘추』, 1942.6), 「사냥」(『춘추』, 1942.2), 「영월영감」(『문장』, 1939.2-3), 「농군」(『문장』, 1939.7), 「토끼 이야기」(『문장』, 1941.2), 「석양」(『국민문학』, 1943.1), 「돌다리」(『국민문학』, 1943.1), 「뒷방마님」 등을 대상으로하여 묘사주의, 간결체, 미문주의 등으로 구체화된 국어 실천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차츰 얽게 눈이 깔린 산기슭이 가까워졌다. 동네를 하나 지나서부터는 논 대신 밭들이 나오며 길도 촌맛이 나기 시작했다. 꼬리가 점점 긴장해지던 도무란 놈이 구루만 나뭇콩밭으로 뛰어 들었다. 사람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 개는 코를 땅에 묻히고 쫄쫄 매암을 돌면서 내음을 해나간다. 절문 포수는 총을 발로 잡고 바짝 짊어선다. 일행은 길우에서 서서들 바라보았다. 불과 오륙십보 안에서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밭고랑에서 푸드득 하더니 수업랑같은 쟁기 한 마리가 뜬다. 날개도 제대로 펴기 전에 총뿌리에서 흰 연기가 짝 빠더니 탕소리와 함께 핑은 그 순간 물체가 되어 말뚝에 튕겨 떨어지는 것이었다. 한은 핑을 주으러 뛰어가나 개가 먼저와 물었다. 한이 달래보아스나 개는 쏜살같이 저의 주인에게 달려났다.(『무연』, 28쪽)

이상의 인용문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길도 촌맛이 나기 시작했다”, “쫄쫄

매암을 돌면서, “수염랑같은 쟁기”, “총뿌리에서 흰 연기가 짝 빠더니”, “물체가 되어 말뚝에 딱 떨어지는 것이었다” 등과 같이 묘미있는 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담백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쓰거나 맵거나 짠 맛이 살짝 배어 있다는 비유를 쓸 만하다.

물줄기는 대뜸 서까래처럼 굽어졌다.

모다 물 줄기로 튀어 들었다. 두 손으로들 움켜 본다. 물은 생선처럼 찬 것이 펄펄 살았다. 물이다. 만주 와서 처음 들어 보는 물 흐르는 소리다. 입술이 조여든 창권은 다시 움켜 흙물인채 빨걱빨걱 드리켰다.

물은 기둥처럼 굽어졌다.

어디서 또 총소리가 물방을 친다.

물은 철록철록 소리를 쳐 둔덕진대를 따리며 휩쓸어 내려 쓸린다. 종아리끼가 대뜸 지나친다. 삽과 팽이를 둔덕으로 끌어 올렸다. (『농군』, 126쪽)

이상의 글은 기본적으로 단문주의(短文主義)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물에 다 한껏 생명을 부여한 활유법을 구사함으로써 급박한 현상변화의 제시에 큰 효과를 올리게 된다. “펄펄 살았다”, “빨걱빨걱 드리켰다”, “철록철록 소리를 쳐” 등의 의태어나 의성어는 생동감 환기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선집에 윤곽인 정거장을 나서니 바른 편에 석탑(石塔)이 한자리 섰다. 벌써 뜨겁기 시작한 해는 결코 동쪽 같지 않은 데서 쏘아온다. 이모 저모 부서지고 갈려지고 한 탑은 돌이 아니라 몇만년 전 지층(地層)에서 나온 무슨 동물의 사둥이뼈같이 누루 통통하다. 산이 뱅뱅 돌리었는데 자차분하게 깔리다만 시기는 경주가 아니라 경주의 부스레기란 느낌이었다. (『석양』, 161쪽)

이 글은 미문이다. 해, 석탑, 산 등에 대한 범상치 않은 묘사가 어우러지면서 저절로 경주의 이미지가 잡혀 오게 된다. 이태준은 「소설독본」(『여성』, 1938.7)에서 소설의 표현은 아예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물이나 사건(생활)을 붓잡으면 쓰는(문장) 문제가 온다. 여기도 문제는 복잡다단하다. 기중 근본적인 중요점만 한 가지 말하려 한다. 미사여구가 소용없다. 고담준론이 필요치 않다. 철두철미 묘사라야 한다. 설명적인 문구는 묘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주석하는 것밖에 다른 의의가 없다.(268쪽)

실제 그 자신의 많은 작품들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이태준은 미사여구로 나타나는 과장되거나 야단스러운 문장도 배제하고 있으며 고담준론으로 표현되는 관념적이거나 지적인 문장도 피하고 있다. 이태준의 주장처럼 소설은 묘사주의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묘사절대론은 한 편의 소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한계를 자초하기 쉽다.

(가)반대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한 것이었다. 보통을 내어 논을 풀면 그 논에서들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였다. 방바닥 같은 들이라 자기네 밭에 모다 침수가 된 것이니 자기네는 조선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짓고 떠나야 옹으냐는 것이다. 너이들도 그 물을 끌어다 벼농사를 지으면 도리혀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다.(『농군』, 114쪽)

(나)봄이 되었다. 삼십리 붓도랑은 조선사람들의 다시 참호(塹壕)가 되었다. 땅이 한치가 녹으면 한치를 걷어내고 반자가 녹으면 반자를 파내인다. 이 눈치를 채인 토민들은 다시 불온해졌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은 붓도랑에 나갈 때 썰이나 삼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있는 물자는 이 황무지와 이 붓도랑을 위해 남김없이 받혀 버렸다. 이것을 버리고 돌아설테는 없다. 죽어도 여기 밖에 없다. 집도 여기요 무덤도 여기다. 언제 토민들이 몰려오든지, 오는 날은 사생결단이다.(『농군』, 117쪽)

(가)와 (나)는 묘사와 설명의 혼성이요 객관묘사와 주관서술의 합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가)에서는 만주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의 속내와 만주인

들의 속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명의 태도나 말하기 방법을 피하려 한 나머지 이태준은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뿌리 깊은 대결의식을 되도록 간단하게 보려 한 결과를 드러내고 만다. (나)에서 “이것을 버리고 --- 오늘날은 사생결단이다”는 식으로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토지 사수 의지를 저 깊은 무의식세계로부터 건져 올리게 된다. 이태준이 이 대목에 와서도 묘사주의를 지켰다면 목숨을 걸고라고 개간지를 지켜내겠다는 조선인들의 비장어린 각오는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새 사조가 지나갈 때마다 많으나 적으나, 또 그것을 위해서나 새것을 위해서나 반듯이 희생자는 났다. 그 사조가 거대한 것이면 거대한 그만치 넓은 발자취로 인류의 일부를 짓밟고 지나갔다. 생각하면 물질문명은 사상의 문명이기도 하다. 한 사상의 신속한 선전은 또 한 사상의 신속한 종국을 가져오기도 한다. 예전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이나 겪을지 말지한 사상의 난리를 현대인은 일생동안 얼마나 자조 겪어야 하는가. 청(淸)의 시인 이초(二樵)가 일신수생사(一身數生死)라 했음은, 현대의 우리를 가르침이라 하고, 현은 몇 번이나 책상을 바라보며 쓴우숨을 지었다.(일신수생사! 사상은 짧고 인생은 길고---) (『토끼이야기』, 143쪽)

윗글은 이태준의 단편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설명적 태도 혹은 말하기 방법의 한 모범이 되고 있다. 이태준은 시대사조 혹은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많은 작품을 써 온 작가답게 이태준은 “사상은 짧고, 인생은 길고”라는 나름대로의 철리를 보여 주게 된다.

3. 이론과 실천의 틈

「무연」에는 ‘반두질굴’(물고기 잡는 그물의 일종인 반두로 고기잡이 하는 사람), ‘이시미’(이무기), ‘울멍줄멍’(크고 두드러진 것들이 고르지 않게 벌어

져 있는 모양), ‘일취’(마음 내키는 대로)의 흥취), ‘트집’(한 덩이가되어야 할 것이 떨어져 버린 바로 그 틈), ‘중둥’(사물의 중간), ‘미눌’(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한 작은 갈퀴), 기거무시(起居無時)(은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비유함) 등과 같은 정도의 낱말이 등장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곧드레, 무망치리, 갈베리, 날베리, 꺾지, 뚝지 등과 같은 물고기의 이름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것은 지식과시를 적극적으로 피해 온 이태준으로서의 예외적인 서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냥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여러 개 튀어 나올 법한 「사냥」에는 다소 낱말로 뫼초리(뫼추리), 생계를 에우다, 눈들이 부성하다, 자차분하다, 솟된 사나이들, 두리두리하다(둥굴고 크다), 실룽거리다, 각을 뜨다(잡아 놓은 짐승의 머리와 다리 등 몇 부분으로 나누다) 등과 같은 말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금광꾼을 주인공으로 한 「영월영감」에는 맥형, 질통군, 덕대, 굶속, 광주, 감석, 노다지 등과 같은 금광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농군」은 만주에서의 개간 모티프를 중심 모티프로 설정하면서도 전문 용어는 거의 내보이지 않고 있다. 「토끼이야기」에는 어려운 문장으로 “허턱(닥치는 대로) 장가를 들어 놓았다”, “술루 심평이 피우(살림이 피우)” 등과 같은 것이 나오는 정도다. 이 소설에서는 토끼를 기르는 법이라든가 토끼를 잡는 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태준이라고 해도 좋을 작가 매현이 경주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석양」에서 박물관, 봉덕사, 첨성대, 석빙고, 반월성, 계림, 오능,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영지 가운데서 깊이있게 관찰되는 곳은 석굴암 정도였다. 나머지 유적지는 이름과 간단한 느낌만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낱말 어휘의 과다와 국어 실천력의 고저가 정상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소설어의 범위를 일상어보다 분명히 넓히려고 하는 것은 국어사랑과 실천력이 남달리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태준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어 실천력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월영감」과 「농군」은 유달리 대화 장면이 많은 소설이다. 「영월영감」은 모두 28페이지에서 대화장면이 20페이지나 차지하고 있으며 「농군」은 33페

이지 중에서 11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준의 경우 지면을 채우기 위해 대화 장면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의 대화체 소설(Dialogroman)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월영감」은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대화체소설이 느슨한 구성으로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영월영감」은 긴밀한 구성을 보여 준다. 「영월영감」에서 영월 아저씨는 조카 성익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약 생철학이 분명한 사람으로 격상한다.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실감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군」도 대화체를 비중 있게 설정함으로써 인물들과 사건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게 된다.

언어는 한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라든가 국어 발전은 문학 발전의 기초라는 것과 같은 언어 중시론을 펼친 것에 비하면 이태준은 한국어의 보존과 개발이란 문제에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국어가 안고 있는 문학어로서의 가능성을 펼치는 작업도 열심히 한 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